

## 『素問』의 刺血療法에 대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sup>1</sup> ·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겸임교수<sup>2</sup>  
강희철<sup>1</sup> · 이정태<sup>2</sup> · 김용진<sup>1</sup> \*

### A Study on the Blood-Letting Therapy of *SoMoon*

Kang Hee-Cheol<sup>1</sup> · Lee Jeong-Tae<sup>2</sup> · Kim Yong-Jin<sup>1</sup> \*

<sup>1</sup>Dept. of Oriental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sup>2</sup>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in University.

**Objective** : The Blood-Letting Therapy which gives an acupuncture and lets blood on the surface of body by using various needles is quite effective in chronic disease.

*SoMoon* lay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Korean Medicine. This article could help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blood-letting therapy in *SoMoon* and also paves the way for applying the therapy to treatment of the various diseases.

**Method** : This study selected the texts correlated to indications of blood-letting, after collecting the sentences from *SoMoon* with the search words 'blood', 'stagnated blood' and so on.

**Conclusion** : This study on the Blood-Letting Therapy includes the way and location to give an acupuncture, the general rules of prescription, needles, amount of blood-letting, running mechanism and attentions.

The purpose of Blood Letting Therapy is to treat and cure the disease through Improve vital energy and Expel harmful energy by improving meridian function and harmonizing Um-Yang and Ki-Blood.

**Key Words** : *SoMoon*, Blood Letting Therapy, location to give an acupuncture, amount of blood-letting.

## I. 서 론

刺血療法이란 체표에 분포된 孫絡, 浮絡, 血脈 등 腧穴부위의 '血絡'을 刺鍼하여 瀉血 또는 出血시켜

疾病을 治療하는 방법이다. 刺血療法에 사용되는 鍼具는 砭石, 鋒鍼, 鈹鍼, 毫鍼 등이 쓰여 왔고 현재에는 三棱鍼, 小眉刀, 皮膚鍼, 란셋 등으로 病情에 따라 點刺, 挑刺, 叢刺, 散刺 등 여러 가지 방법을 活用하고 있다<sup>1)</sup>.

\* 교신저자 : 김용진.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E-mail : king@dju.kr Tel : 042-280-2626  
접수일(2013년 10월21일), 수정일(2013년 11월14일),  
게재확정일(2013년 11월15일).

1) 金軍. 刺血療法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7. p. 1.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광범하게 刺血療法을 사용하고 있고 中國이나 印度 等地에서는 刺血法만을 활용하여 病을 治療하는 專門醫師도 있으며<sup>2)</sup>,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刺血療法만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한의사가 과거에 비하여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아직 미미하여 체계화되지는 못하였고 임상치료의 경험 축적을 통하여 刺血療法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刺血療法의 정확한 起源은 記錄되어 있지 않으나 人類는 약 一萬餘年 前부터 刺血療法으로 疾病을 治療하였다고 추측된다. 『黃帝內經』에서는 鋒針으로 刺血하였다고 하였고, 또한 刺血療法의 操作法, 取穴法, 治病範圍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sup>3)</sup>.

『內經』 162篇 중에 46篇(『靈樞』 26篇, 『素問』 20篇)에서 刺血療法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歷代醫家들도 刺血療法에 대하여 適應證을 넓히고 技術방법을 간편하게 고쳤고 효과도 더욱 뛰어 나게 하여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따라서 『內經』의 刺血療法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刺血療法의 이론적 체계화 및 발전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한다<sup>4)</sup>.

刺血療法은 臨床에서 癩疾病의 治療에 많이 활용되어 藥物이나 針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효과가 있다. 刺血療法은 打撲 등 局所的인 瘀血을 없애는 목적으로 한 癱痺, 疼痛, 痺證의 實證에 주로 應用하여 開竅泄熱, 活血, 消腫 등의 작용이 있는 針刺出血療法일 뿐만 아니라 精確한 辨證에 의하여 血絡과 腧穴에 刺血하여 臟腑의 機能을 조절하는 治療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앞으로는 臟腑經絡理論 등 한의학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體系的이고 침구치료의 중요한 분야로서 전문적인 治療방법을 연구하고 臨床活用に 있어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sup>6)</sup>.

이에 刺血療法의 새로운 發展方向을 摸索하는 方法의 一環으로, 『黃帝內經』에 기록된 刺血法의 內容 중 우선 소문에 나타난 刺血療法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재 임상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刺血療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 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효율성을 위하여 『素問』에 나타난 刺血療法의 목적과 의의, 刺血原則, 刺血療法의 主治病症, 刺血方法(刺血의 道具 및 深淺, 時間, 出血多少 등 刺血의 정도), 刺血部位, 刺血後 反應 및 注意事項으로 나누어 분석 및 고찰을 하였다.

2) 『素問』에서 ‘血’이라는 용어를 찾아서 관련 原文을 모으고, 내용별로 구분하여 이를 토대로 考察하였다.

3) 『素問』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分析 및 考察의 편의상 그대로 引用하였다.

4) 刺血療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라도 일반적인 針刺療法과의 구분이 다소 모호한 내용은 제외하였다.

## III. 『素問』의 刺血療法 관련 내용

\* 원문의 내용은 부록의 도표 참고

\* 인용문헌에 대한 각주의 내용도 삭제 됨

## IV. 總括 및 考察

### 1. 目的意義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其實者 散而瀉之<sup>하</sup>며 審其陰陽<sup>하</sup>야 以別柔剛<sup>하</sup>며 陽病治陰<sup>하</sup>며 陰病治陽<sup>하</sup>고 定其血氣<sup>하</sup>야 各守其鄉<sup>하</sup>야 血實宜決之<sup>하</sup>고 氣虛<sup>하</sup>면 宜掣引之<sup>하</sup>이다”라고 하여 “血實宜決之”라 하였는데 血脈이 盛滿하여 홀로 보통과 다른 것이 두드러질 때는 刺

2) 金軍. 刺血療法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7. p. 1.

3) 金軍. 刺血療法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7. p. 1.

4) 趙慧玲, 張印生, 關紅雨, 李 玘, 彭慧敏, 安 靜, 汪天娟. 『內經』刺絡瀉血法探析. 中國民間療法 2009.11. 제17권 제11기. p. 3.

5) 金軍. 刺血療法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7. p. 1.

6) 金軍. 刺血療法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7. pp. 1~2.

絡하여 瀉해야 함을 이룬 것이며, 『素問·離合眞邪論』에서 “帝曰 補瀉는 奈何오 岐伯曰 此攻邪也<sup>라</sup>야 疾出以去盛血<sup>라</sup>니 而復其眞氣<sup>니</sup> 此邪新客<sup>라</sup>야 溶溶未有定處也<sup>라</sup> 推之則前<sup>라고</sup> 引之則止<sup>라</sup>니 逆而刺之<sup>하면</sup> 溫血也<sup>라</sup> 刺出其血<sup>이라</sup>야 其病立已<sup>라</sup>라하니이다”라고 하여 刺絡瀉血의 目的은 祛邪하여 復正하는데 있음<sup>7)</sup>을 말하고 있다. 즉, 刺血療法은 瘀血을 제거함으로써 病症의 惡化 및 他病으로의 轉變을 방지하고 病邪를 제거하여 正氣를 회복시키는 治療意義와 더불어 氣血의 平衡을 이루는 豫防意義도 갖는다 할 것이다.

## 2. 刺血原則

『素問』에서는 臟腑經絡學說에 근거하여 변증을 통하여 相關되는 經脈과 腧穴에 대하여 刺絡瀉血하는 일종의 처방을 선별하였고, 經脈病뿐만 아니라 臟腑病도 치료한 것이다. 기타 病證이 複雜하여 여러 經脈과 臟腑에 영향을 주었을 때 두 개이상 經脈의 腧穴을 刺絡瀉血할 수 있다. 이는 “經脈所通, 主治所及”의 이론과 針灸取穴 理論과 서로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素問·刺癰』에 “先頭痛及重者, 刺頭上及兩額兩眉間出血.”라고 하였는데 이는 病處와 그 주변을 刺絡瀉血하는 방법을 언급한 것으로 局部瀉血方法이며, 全身性疾病에 대하여도 특정부위를 瀉血하여 치료하는 것을 논하였는 바 특정한 輸血을 瀉血하여 특정한 疾患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素問·刺腰痛篇』에 “腰痛, 刺解脈, 在郛中結絡如黍米”라고 하였는데 이 문장에서 말한 “結上” 혹은 “結絡如黍米”는 모두 血絡이 結聚하여 정상적인 곳과 다른 것을 말하니 실로 瘀血이 滯留된 특징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刺針하여 出血시켜 血絡을 소통시켜야 한다는 자혈기준을 말한 것이다<sup>8)</sup>.

구체적인 刺血原則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素問·三部九候論』에서 “帝曰 以候는 奈何오 岐伯曰 必先度其形之肥瘦<sup>라</sup>야 …… 必先去其血脈<sup>라고</sup> 而後調之<sup>라</sup> …… 岐伯曰 經病者는 治其經<sup>라고</sup> 孫絡病者는 治其孫絡<sup>라고</sup> 血病身有痛者는 治其經絡<sup>라고</sup> …… 上實下虛<sup>어든</sup> 切而從之<sup>라</sup>야 索其結絡脈<sup>라</sup>야 刺出其血<sup>이라</sup>야 以見通之<sup>라</sup>”라고 하여, 三部九候로써 針刺할 곳을 살피는데에 있어서 治法이 사람과 病에 따라서 달라야 함과 氣血이 平調함을 기준으로 함을 논하였고, 여러 종류의 病症에 대한 刺法을 제시하였다.

『素問·血氣形志篇』에서 “凡治病에 必先去其血<sup>이라</sup>야 乃去其所苦<sup>니</sup> …… 刺陽明<sup>엔</sup> 出血氣<sup>라고</sup> 刺太陽<sup>엔</sup> 出血惡氣<sup>라고</sup> 刺少陽<sup>엔</sup> 出氣惡血<sup>라고</sup> 刺太陰<sup>엔</sup> 出氣惡血<sup>라고</sup> 刺少陰<sup>엔</sup> 出氣惡血<sup>라고</sup> 刺厥陰<sup>엔</sup> 出血惡氣也<sup>라</sup>”라하여 六經의 氣血의 多少에 따른 刺血原則을 제시하고 있다.

『素問·離合眞邪論』에서는 “帝曰 補瀉는 奈何오 岐伯曰 此攻邪也<sup>라</sup>야 疾出以去盛血<sup>라</sup>니 而復其眞氣<sup>니</sup> 此邪新客<sup>라</sup>야 溶溶未有定處也<sup>라</sup> 推之則前<sup>라고</sup> 引之則止<sup>라</sup>니 逆而刺之<sup>하면</sup> 溫血也<sup>라</sup> 刺出其血<sup>이라</sup>야 其病立已<sup>라</sup>라하니이다”라고 하여 刺血을 통해 眞氣와 邪氣를 離合시킴에 대하여 그 原則을 제시하고 있다.

『素問·癰論』에서는 “帝曰 善<sup>타</sup> 攻之奈何며 早晏은 何如오 岐伯曰 癰之且發也와 陰陽之且移也에 必從四末始也<sup>니</sup> 陽已傷<sup>하면</sup> 陰從之故로 先其時<sup>하</sup>야 堅束其處<sup>라</sup>야 令邪氣不得入<sup>하</sup>며 陰氣不得出<sup>게</sup>하고 審候見之<sup>하</sup>야 在孫絡盛堅而血者를 皆取之<sup>니</sup> 此眞往而未得并者也<sup>니</sup>이다”라하여 癰疾을 針刺로 治療하는 原則을 자세히 논했다.

『素問·病能論』에서 “帝曰 何以言之오 岐伯曰 少陰脈이 貫腎絡肺<sup>라</sup>니 今得肺脈이 腎爲之病 故로 腎爲腰痛之病也<sup>니</sup>이다 帝曰 善<sup>타</sup> 有病頸癰者를 或石治之<sup>하</sup>며 或鍼灸治之<sup>오</sup>되 而皆已<sup>라</sup>니 其眞安在오 岐伯曰 此는 同名異等者也<sup>니</sup> 夫癰氣之息者는 宜以鍼開除去之<sup>라고</sup> 夫氣盛血聚者는 宜石而瀉之<sup>니</sup> 此所謂同病異治也<sup>니</sup>이다”라고 하여 頸癰에 있어서도 마땅히 刺出血과 排膿해야함을 말하였다.

『素問·氣穴論』에서는 “岐伯曰 孫絡之脈別經者에 其血이 盛而當瀉者는 亦三百六十五脈이니 竝注於絡<sup>라</sup>야 傳注十二絡脈이오 非獨十四絡脈也<sup>이며</sup> 內解瀉於中者 十脈이니이다”라고 하여 人體의 表裏內外가 相應한다는

7) 王 銳. 『內經』刺血療法探析. 山東中醫學院學報 제20권 제5기. 1996. p. 308.

8) 趙慧玲, 張印生, 關紅雨, 李 珣, 彭慧敏, 安 靜, 汪天娟. 『內經』刺絡瀉血法探析. 中國民間療法 2009.11. 제17권 제11기. p. 3.

統一整體觀念 하에서 刺血原則을 제시하였다.

『素問·調經論』에서는 “帝曰 補瀉는 奈何 岐伯曰 神有餘則瀉其小絡之血<sup>라야</sup> 出血<sup>하고</sup> 勿之深斥<sup>이니</sup> 無中其大經<sup>이라야</sup> 神氣乃平<sup>하고</sup> 神不足者는 視其虛絡<sup>라야</sup> 按而致之<sup>하며</sup> 刺而利之<sup>호되</sup> 無出其血<sup>하며</sup> 無泄其氣<sup>하고</sup> 以通其經<sup>이라야</sup> 神氣乃平<sup>라나니</sup>이다 …… 帝曰 善<sup>타</sup> 血有餘不足은 奈何 岐伯曰 血有餘則怒<sup>하고</sup> 不足則恐<sup>라니</sup> 血氣未并<sup>라야</sup> 五臟이 安定<sup>라나</sup> 孫絡水溢<sup>하면</sup> 則經有留血<sup>이니</sup>이다 帝曰 補瀉는 奈何 岐伯曰 血有餘則瀉其盛經<sup>라야</sup> 出其血<sup>하고</sup> 不足則視其虛經<sup>라야</sup> 內鍼其脈中<sup>라야</sup> 久而視<sup>니</sup> 脈大疾<sup>이어</sup>은 出其鍼<sup>라야</sup> 無令血泄<sup>이니</sup>이다 帝曰 刺留血은 奈何 岐伯曰 視其血絡<sup>라야</sup> 刺出其血<sup>하고</sup> 無令惡血<sup>로</sup> 得入於經<sup>라야</sup> 以成其疾<sup>이니</sup>이다 …… 帝曰 善<sup>타</sup> 志有餘不足은 奈何 岐伯曰 志有餘 則腹脹飧泄<sup>하고</sup> 不足則厥<sup>이라</sup> 血氣未并<sup>하면</sup> 五臟이 安定<sup>라나</sup> 骨節有動<sup>이니</sup>이다 帝曰 補瀉는 奈何 岐伯曰 志有餘則瀉然筋血者<sup>이요</sup> 不足 則補其復溜<sup>이니</sup>이다”라고 하여 神·(氣)·血·(形)·志의 虛實證을 치료하는데 있어서의 刺血原則을 제시하고 있다.

『素問·繆刺論』에서 “凡刺之數는 先視其經脈<sup>라야</sup> 切而從之<sup>라야</sup> 審其虛實而調<sup>니</sup> 不調者는 經刺之<sup>하고</sup> 有痛而經不病者는 繆刺<sup>니</sup> 因視其皮部에 有血絡者<sup>라야</sup> 盡取<sup>니</sup> 此繆刺之數<sup>也</sup>이니이다”라고 하여 繆刺法의 응용원칙이 단지 絡에만 있는 병이고 經은 병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임을 천명했다. 이상에서 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표1과 같다.

### 3. 主治病症

『素問』에 근거하면 刺血療법은 많은 病症 즉 內科 外科 五官科 등 각 科의 疾病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素問』의 刺血療法로 치료한 여러 종류의 病症을 수집하여 각 病症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그 중에는 內科病證이 많으니 주로 臟腑病, 神志病, 痛證, 瘡疾 등이고, 다음으로 外科, 傷科와 五官科病證이다<sup>9)</sup>. 이들 병증은 큰 범주에서 『素問·三部九候論』에 제시된 “孫絡病者, 治其孫絡血.”처럼 經絡病症,

臟腑病症, 그리고 經絡病症과 臟腑病症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 기타病症 등으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써 刺血療법은 古代의 疾病治療에 있어 광범위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素問·臟氣法時論』에서 “肝病者는 兩脇下痛引少腹<sup>하며</sup> 令人善怒<sup>하고</sup> 虛則目眈眈無所見<sup>하며</sup> 耳無所聞<sup>하며</sup> 善恐<sup>라야</sup> 如人將捕<sup>라니</sup> 取其經厥陰與少陽<sup>호되</sup> 氣逆則頭痛<sup>하며</sup> 耳聾不聰<sup>하며</sup> 頰腫<sup>라니</sup> 取血者<sup>하고</sup> 心病者는 胸中痛<sup>하며</sup> 脇肢滿<sup>하며</sup> 脇下痛<sup>하며</sup> 膺背肩中間이 痛<sup>하며</sup> 兩臂內痛<sup>하고</sup> 虛則胸腹이 大<sup>하고</sup> 脇下與腰<sup>로</sup> 相引而痛<sup>라니</sup> 取其經 少陰 太陽<sup>하며</sup> 舌下血者<sup>하고</sup> 其變病은 刺郄中血者<sup>하고</sup> 脾病者는 身重<sup>善</sup>하며 飢肉痿 足不收行<sup>하며</sup> 善噦<sup>라야</sup> 脚下痛<sup>하고</sup> 虛則腹滿腸鳴<sup>하며</sup> 飧泄食不化<sup>라니</sup> 取其經 太陰陽明少陰血者<sup>하고</sup> 肺病者는 喘欬逆氣<sup>하며</sup> 肩背痛<sup>하며</sup> 汗出<sup>하며</sup> 尻陰股膝 髀膕胻足이 皆痛<sup>하고</sup> 虛則少氣<sup>라야</sup> 不能報息<sup>하며</sup> 耳聾喑啞<sup>라니</sup> 取其經太陰과 足太陽之外 厥陰內血者<sup>하고</sup> 腎病者는 腹大脛腫<sup>하며</sup> 喘欬身重<sup>하며</sup> 寢汗出憎風<sup>하고</sup> 虛則胸中痛<sup>하며</sup> 大腹小腹痛<sup>하며</sup> 清厥意不樂<sup>라니</sup> 取其經 少陰太陽血者<sup>라니</sup>이다”라 하였는데 이는 五臟의 虛實한 症狀과 구체적인 治療法則을 논한 것이다. 이는 臟腑經絡學說에 근거하여 辨證을 통하여 相關되는 經脈과 腧穴에 대하여 刺絡瀉血하는 일종의 處方을 선별하였고, 經脈病뿐만 아니라 臟腑病도 치료한 것이다.

기타 病證이 複雜하여 여러 經脈과 臟腑에 영향을 주었을 때 두 개이상 經脈의 腧穴을 刺絡瀉血할 수 있다. 이는 “經脈所通, 主治所及”의 이론과 針灸取穴 理論과 서로 부합하는 것이다<sup>10)</sup>.

『素問·刺熱篇』에서 “肺熱病者는 先淅然<sup>라야</sup> 厥起毫毛<sup>하며</sup> 惡風寒<sup>하며</sup> 舌上黃<sup>하며</sup> 身熱<sup>하고</sup> 熱爭則喘欬<sup>하며</sup> 痛走胸膺背<sup>하며</sup> 不得大息<sup>하며</sup> 頭痛不堪<sup>하며</sup> 汗出而寒<sup>라니</sup> 丙丁에 甚<sup>하고</sup> 庚辛에 大汗<sup>이</sup> 氣逆則丙丁에 死<sup>라니</sup> 刺手太陰陽明<sup>라야</sup> 出血如大豆<sup>하면</sup> 立已<sup>라</sup>”라하여 肺에 熱病이 났을 때의 症狀, 豫後, 刺血治療方法을 논했다.

『素問·瘧論』에서는 “帝曰 善<sup>타</sup> 攻之奈何<sup>며</sup> 早晏은

9) 趙慧玲, 張印生, 關紅雨, 李 珮, 彭慧敏, 安 靜, 汪天娟. 『內經』刺絡瀉血法探析. 中國民間療法 2009.11. 제17권 제11기. p. 3.

10) 趙慧玲, 張印生, 關紅雨, 李 珮, 彭慧敏, 安 靜, 汪天娟. 『內經』刺絡瀉血法探析. 中國民間療法 2009.11. 제17권 제11기. p. 3.

何如<sup>오</sup> 岐伯曰 瘧之且發也<sup>와</sup> 陰陽之且移也<sup>에</sup> 必從四末始也<sup>니</sup> 陽已傷<sup>라</sup> 陰從之故<sup>로</sup> 先其時<sup>라</sup> 堅束其處<sup>라</sup> 令邪氣不得入<sup>라</sup> 陰氣不得出<sup>게</sup> 하고 審候見之<sup>라</sup> 在孫絡盛堅而血者<sup>를</sup> 皆取之<sup>니</sup> 此眞往而未得并者也<sup>니</sup>이다”라고 하여 瘧疾을 刺血法으로 治療할 수 있음을 말하고 針刺治療의 原則을 논하였다.

『素問·刺瘧』에서 “足太陽之瘧<sup>은</sup> 令人腰痛頭重<sup>하고</sup> 寒從背起<sup>하며</sup> 先寒後熱<sup>하며</sup> 熇熇喝喝然<sup>하니</sup> 熱止汗出<sup>하면</sup> 難已<sup>니</sup> 刺郄中出血<sup>하라</sup>”라고 하여 六經중 足太陽之瘧의 증상에 郄中을 刺하여 出血시켜야 함을 말하였고, “肝瘧者<sup>는</sup> 令人色蒼蒼然 太息<sup>하며</sup> 其狀若死者<sup>하니</sup> 刺足厥陰<sup>이라</sup> 見血<sup>하라</sup> …… 胃瘧者<sup>는</sup> 令人且病也<sup>에</sup> 善饑而不能食<sup>하며</sup> 食而肢滿腹大<sup>하니</sup> 刺足陽明太陰橫脈<sup>이라</sup> 出血<sup>하라</sup>”라하여 臟腑瘧 중에서 肝瘧과 胃瘧의 症狀 및 刺血部位 등 治法을 제시하였다<sup>11)</sup>.

『素問·刺瘧』에서는 瘧疾에 대하여 六經과 臟腑分證 方法을 運用하여 歸類시키고 型을 나누었으며 각종 類型의 瘧疾症狀 및 治療방법을 비중있게 闡明하였고, 五臟六腑·六經瘧의 症狀과 刺血法을 토론했는데 이것은 瘧疾에 대한 辨證施治하는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治療法은 臨床에 있어서 뛰어난 效果가 있으며 어떤 方面에서는 藥物療法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素問·刺腰痛篇』에서는, “足太陽脈<sup>이</sup> 令人腰痛<sup>하면</sup> 引項脊尻背如重狀<sup>하니</sup> 刺其郄中太陽正經<sup>이라</sup> 出血<sup>로</sup>되 春無見血<sup>하라</sup> 少陽<sup>이</sup> 令人腰痛<sup>하면</sup> 如以鍼<sup>으로</sup> 刺其皮中循循然<sup>하고</sup> 不可以俛仰<sup>하며</sup> 不可以顧<sup>니</sup> 刺少陽成骨之端<sup>이라</sup> 出血<sup>하라</sup> 成骨<sup>은</sup> 在膝外廉之骨獨起者<sup>하니</sup> 夏無見血<sup>하라</sup> 陽明<sup>이</sup> 令人腰痛<sup>하면</sup> 不可以顧<sup>하니</sup> 顧如有見者<sup>는</sup> 善悲<sup>하니</sup> 刺陽明於筋前三疔<sup>이라</sup> 上下和之<sup>라</sup> 出血<sup>과</sup> 秋無見血<sup>하라</sup> 足少陰<sup>이</sup> 令人腰痛<sup>하면</sup> 痛引脊內廉<sup>하니</sup> 刺少陰於內踝上二疔<sup>호</sup>되 春無見血<sup>하라</sup> 出血太多<sup>하면</sup> 不可復也<sup>라</sup> 厥陰之脈<sup>이</sup> 令人腰痛<sup>하면</sup> 腰中如張弓弩弦<sup>하니</sup> 刺厥陰之脈<sup>호</sup>되 在踰踵魚腹之外<sup>하니</sup> 循之累累然<sup>하야</sup> 乃刺之<sup>라고</sup> 其病<sup>이</sup> 令人善言<sup>하니</sup> 默然不慧<sup>어든</sup> 刺之三疔<sup>하라</sup>”라고 하여 正經이 일으키는 腰痛의 증상 및 刺血法을 논하였고, “解脈<sup>이</sup>

令人腰痛<sup>하면</sup> 痛而引肩<sup>하며</sup> 目眈眈然<sup>하며</sup> 時遺洩<sup>라</sup> 刺解脈在膝筋肉分間<sup>이</sup> 郄外廉之橫脈<sup>이라</sup> 出血<sup>하라</sup> 血變而止<sup>하라</sup> 解脈<sup>이</sup> 令人腰痛<sup>하면</sup> 如引帶<sup>하며</sup> 常如折腰狀<sup>하며</sup> 善恐<sup>어든</sup> 刺解脈在郄中<sup>이니</sup> 結絡如黍米<sup>하야</sup> 刺之<sup>하면</sup> 血射以黑<sup>하니</sup> 見赤血而已<sup>하라</sup> …… 衡絡之脈<sup>이</sup> 令人腰痛<sup>하면</sup> 不可以俛仰<sup>하고</sup> 仰則恐仆<sup>하니</sup> 得之舉重傷腰<sup>하야</sup> 衡絡<sup>이</sup> 絶<sup>하야</sup> 惡血<sup>이</sup> 歸之<sup>라</sup> 刺之在郄陽筋之間<sup>과</sup> 上郄數寸<sup>이니</sup> 衡居爲二疔<sup>호</sup>되 出血<sup>하라</sup> 會陰之脈<sup>이</sup> 令人腰痛<sup>하면</sup> 痛上漯漯然汗出<sup>하니</sup> 汗乾令人欲飲<sup>하고</sup> 飲已欲走<sup>하니</sup> 刺直陽之脈上三疔<sup>니</sup> 在踰上郄下五寸橫居<sup>하니</sup> 視其盛者<sup>하야</sup> 出血<sup>하라</sup>”라고 하여 奇經 支脈 絡脈이 일으키는 腰痛의 症狀 및 刺法을 논하였다<sup>13)</sup>.

『素問·繆刺論』에서는 “帝曰 願聞繆刺奈何<sup>와</sup> 取之何如<sup>하노라</sup> 岐伯曰 邪客於足少陰之絡<sup>하면</sup> 令人卒心痛<sup>하며</sup> 暴脹<sup>하야</sup> 胸脇<sup>이</sup> 肢滿<sup>하니</sup> 無積者<sup>는</sup> 刺然骨之前<sup>하야</sup> 出血<sup>하면</sup> 如食頃而已<sup>라</sup> …… 人有所墮墜<sup>하야</sup> 惡血留內<sup>하면</sup> 腹中滿脹<sup>하야</sup> 不得前後<sup>하니</sup> 先飲利藥<sup>이니</sup> 此<sup>는</sup> 上傷厥陰之脈<sup>라고</sup> 下傷少陰之絡<sup>이라</sup> 刺足內踝之下 然骨之前<sup>의</sup> 血脈<sup>하야</sup> 出血<sup>하며</sup> 刺足跗上動脈<sup>이니</sup> 不已<sup>어든</sup> 刺三毛上<sup>하되</sup> 各一疔<sup>하야</sup> 見血<sup>하며</sup> 立已<sup>라</sup> …… 噎中<sup>이</sup> 腫<sup>하야</sup> 不能內唾<sup>하며</sup> 時不能出唾者<sup>는</sup> 刺然骨之前<sup>하야</sup> 出血立已<sup>라</sup> …… 齒齲<sup>는</sup> 刺手陽明<sup>하야</sup> 不已<sup>어든</sup> 刺其脈入齒中<sup>하면</sup> 立已<sup>라고</sup> 邪客於五臟之間<sup>하면</sup> 其病也 脈引而痛<sup>하야</sup> 時來時止<sup>어든</sup> 視其病<sup>하야</sup> 繆刺之於手足爪甲上<sup>이니</sup> 視其脈<sup>하야</sup> 出其血<sup>하되</sup> 間日一刺<sup>하고</sup> 一刺不已<sup>어든</sup> 五刺<sup>하면</sup> 已<sup>라고</sup> 繆傳引上齒<sup>하면</sup> 齒齲<sup>이</sup> 寒痛<sup>하니</sup> 視其手背脈血者<sup>하야</sup> 去之<sup>라</sup>”라고 하여 邪氣가 三陰三陽 등의 絡에 침입하여 머물렀을 때의 繆刺하는 방법<sup>14)</sup>중에서 刺血法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표2와 같은바, 刺血療法을 통하여 治療할 수 있는 病症은 臟腑病症, 經絡病症, 神志病症으로 大別하여 볼 수 있으며 이들 病症은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病症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으며, 內科, 外科, 五官科 및 筋骨絡系 疾患 등 거의 모든 疾患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1) 王琦, 李炳文, 邱德文, 王慶其, 彭榮琛編者.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1983. p. 172.

12)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2. 개정판 4쇄. 여강출판사. 2001. p. 493, 517.

13) 王琦, 李炳文, 邱德文, 王慶其, 彭榮琛編者.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1983. pp. 197~198.

14)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3. 개정판 4쇄. 여강출판사. 2001. p. 529.

#### 4. 刺血方法

##### 1) 刺血道具

『素問』에서는 砭石과 九針을 언급하였다. 砭石은 現存하는 가장 오래된 針具로서, 新石器時代부터 春秋戰國時代에 이르기 까지 나타난 것으로 刺出血시키거나 排膿시키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素問·病能論』에서 “頸癰”을 언급하면서 “夫氣盛血聚者, 宜石而瀉之”라고 하였다. 九針은 가장 오래된 金屬의 針具로서 青銅器時代부터 나타났다. 『內經』에서 언급된 九針은 『靈樞·九針十二原』, 『九針論』, 『小針解』, 『官針』, 『刺節真邪』와 『素問·針解篇』等等에서 鑱針, 鋒針, 鍅針 등이 모두 瀉血시키는 針具이다.

現在 臨床에서 瀉血할 때 사용되는 三棱針은 鋒針이 發展하여 나타난 것이며 瀉血과 排膿할 때 사용하는 小眉刀는 鍅針과 유사하다. 『素問·刺癰』에서는 “跗髓病以鑱針刺絕骨出血, 立已.”라고 하였는데 이는 皮膚를 淺刺하여 出血시키는 工具인데 發展하여 현재의 梅花針이 되었다<sup>15)</sup>.

『素問·刺癰』에서 “癰에 脈滿大急이든 刺背俞로되 用中鍼으로 傍五肋俞하고 各一하야 適肥瘦하야 出其血也라”라 하였는데, 高世植은 ‘中鍼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침이다’라고 하였다<sup>16)</sup>.

“刺癰者는 必先問其病之所先發者하야 先刺之니 先頭痛及重者는 先刺頭上하고 及兩額兩眉間하야 出血하며 先項背痛者는 先刺之하고 先腰脊痛者는 先刺郛中出血하고 先手臂痛者는 先刺手少陰陽明十指間하고 先足脛痠痛者는 先刺足陽明十指間出血하야 風癰은 癰發則汗出惡風하야 刺三陽經背俞之血者하고 筋痠痛甚하야 按之不可를 名曰 附髓病이니 以鑱鍼으로 鍼絕骨出血하면 立已라 身體小痛이든 刺至陰하고 諸陰之井로되 無出血하며 間日一刺하고 癰不渴하고 間日而作이든 刺足太陽하고 渴而間日作이든 刺足少陽하야 溫癰에 汗不出이든 爲五十九刺라”라하여 癰疾에서 먼저 나타나는 症狀의 治療에 대해 논했으며

刺血道具로 鑱鍼을 제시하였다.

『素問·病能論』에서 “帝曰 何以言之오 岐伯曰 少陰脈이 貫腎絡肺하야 今得肺脈이 腎爲之病 故로 腎爲腰痛之病也니이다 帝曰 善타 有病頸癰者를 或石治之하며 或鍼灸治之호되 而皆已하야 其眞安在오 岐伯曰 此는 同名異等者也니 夫癰氣之息者는 宜以鍼開除去之하고 夫氣盛血聚者는 宜石而瀉之니 此所謂同病異治也니이다”라하여 砭石으로 刺血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素問·鍼解篇』에서 “黃帝問曰 願聞九鍼之解와 虛實之道하노라 …… 岐伯對曰 刺虛則實之者는 鍼下熱也니 氣實乃熱也오 滿而泄之者는 鍼下寒也니 氣虛乃寒也오 苑陳則除之者는 出惡血也오 …… 虛實之要에 九鍼最妙者는 爲其各有所宜也오 補瀉之時者는 與氣開闔相合也오 九鍼之名이 各不同形者는 鍼窮其所當補瀉也라”라고 하였는데 王冰의 註釋에서 刺血療法和 관련된 것은 鑱針, 鋒針, 鍅針 등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素問·刺癰』의 “用中鍼”, “以鑱鍼”, 『素問·病能論』의 “宜石而瀉之”, 『素問·鍼解篇』의 “苑陳則除之者 …… 九鍼最妙者는 爲其各有所宜也”라는 기재로 미루어 보아 『素問』에 나타난 刺血道具는 각 질환이나 증상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鑱針, 鋒針, 鍅針, 砭石 등이라 할 수 있겠다.

##### 2) 刺血의 정도 - 深淺, 時間, 出血多少標準 등

『素問·診要經終論』에서 “黃帝問曰 診要는 何如오 岐伯對曰 …… 故로 春刺散俞와 及與 分理하야 血出而止니 甚者는 傳氣오 間者는 環也라 夏刺絡俞하야 見血而止니 盡氣閉環하면 痛病必下라”라하여 疾病의 診斷과 治療에 四時의 變化를 重視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春夏秋冬에 따라 刺血部位와 刺血方法이 달라야 함을 나타냈는데 春夏에는 刺血法으로 治療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素問·刺熱篇』에서는 “肺熱病者는 先漸然하야 厥起毫毛하며 惡風寒하며 舌上黃하며 身熱하고 熱爭則喘欬하며 痛走胸膈背하며 不得大息하며 頭痛不堪하며 汗出而寒하야 丙丁에 甚하고 庚辛에 大汗이오 氣逆則丙丁에 死하야니 刺手太陰陽明하야 出血如大豆하면 立已라”라하여 肺에 熱病이 났을 때의 症狀 豫後 刺血治療方法和 出血多少標

15) 趙慧玲, 張印生, 關紅雨, 李玘, 彭慧敏, 安靜, 汪天娟. 『內經』刺絡瀉血法探析. 中國民間療法 2009.11. 제17권 제11기. p3-4.

16)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2. 개정판 4쇄. 여강출판사. 2001. p. 509.

準에 대하여 논했다.

『素問·刺瘡』에서 “瘡發身方熱에 刺附主動脈<sup>라야</sup> 開其空<sup>라야</sup> 出其血<sup>라면</sup> 立寒<sup>이라</sup> …… 瘡에 脈滿大急<sup>이거든</sup> 刺背俞<sup>호되</sup> 用中鍼<sup>으로</sup> 傍五腧俞<sup>하고</sup> 各一<sup>하야</sup> 適肥瘦<sup>라야</sup> 出其血也<sup>라</sup> …… 瘡에 脈滿大急<sup>라면</sup> 刺背俞<sup>라며</sup> 用五腧俞<sup>하고</sup> 背俞各一<sup>하야</sup> 適行至於血也<sup>오</sup> …… 諸瘡而脈不見<sup>이거든</sup> 刺十指間出血<sup>이니</sup> 血去必已<sup>라</sup> 先視身之赤如小豆者<sup>라야</sup> 盡取之<sup>하라</sup> 十二瘡者는 其發이 各不同時<sup>니</sup> 察其病形<sup>라야</sup> 以知其何脈之病也<sup>라</sup> 先其發時<sup>라면</sup> 如食頃而刺之<sup>니</sup> 一刺則衰<sup>하고</sup> 二刺則知<sup>하고</sup> 三刺則已<sup>라하니</sup> 不已<sup>어든</sup> 刺舌下兩脈出血<sup>하며</sup> 不已<sup>어든</sup> 刺郄中盛經出血<sup>하며</sup> 又刺項已下俠脊者<sup>라면</sup> 必已<sup>니</sup> 舌下兩脈者는 廉泉也<sup>라</sup>”라하여 瘡疾의 脈症과 刺法을 논하였다.

『素問·長刺節論』에서는 “與刺之要是 發鍼而淺出血<sup>이니</sup>이다 治腐腫者는 刺腐上<sup>호되</sup> 視癰小大<sup>라야</sup> 深淺刺<sup>니</sup> 刺大者는 多血<sup>하고</sup> 小者는 深之<sup>하야</sup> 必端內鍼<sup>라야</sup> 爲故止<sup>니라</sup>”라하여 刺血에 있어서의 深淺과 腐腫의 刺血方法을 제시하였다.

『素問·繆刺論』에서는 “齒齲는 刺手陽明<sup>라야</sup> 不已<sup>어든</sup> 刺其脈入齒中<sup>라면</sup> 立已<sup>하고</sup> 邪客於五臟之間<sup>라면</sup> 其病也 脈引而痛<sup>라야</sup> 時來時止<sup>어든</sup> 視其病<sup>라야</sup> 繆刺之於手足爪甲上<sup>이니</sup> 視其脈<sup>라야</sup> 出其血<sup>호되</sup> 間日一刺<sup>하고</sup> 一刺不已<sup>어든</sup> 五刺<sup>라면</sup> 已<sup>하고</sup>”라하여 刺血의 部位와 그 刺血의 時間間隔 및 頻度を 제시하였다.

『素問·診要經終論』의 “血出而止”, “見血而止”, 『素問·刺熱篇』의 “出血如大豆”, 『素問·刺瘡』의 “血去必已”, “先視身之赤如小豆者<sup>라야</sup> 盡取之”, 『素問·長刺節論』의 “刺大者는 多血” 등의 내용은 출혈다소표준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것이며, 『素問·長刺節論』의 “與刺之要是 發鍼而淺出血”, “視癰小大<sup>라야</sup> 深淺刺<sup>니</sup> …… 小者는 深之” 등은 刺血에 있어서의 深淺에 대해 제시하고 있고, 『素問·繆刺論』의 “視其脈<sup>라야</sup> 出其血<sup>호되</sup> 間日一刺<sup>하고</sup> 一刺不已<sup>어든</sup> 五刺”는 자혈의 시간간격 및 빈도를 제시하는 등, 기타 『素問·診要經終論』의 “及與分理”, 『素問·刺瘡』의 “刺附主動脈<sup>라야</sup> 開其空<sup>라야</sup> 出其血” 등의 내용과 더불어 刺血方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刺血部位

『素問』에서 刺血部位와 관련된 내용은 비교적 많은 편인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크게 瘀血이 나타난 絡脈, 病變이 있는 部位, 相關되는 穴位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素問·診要經終論』에서 “黃帝問曰 診要是 何如<sup>오</sup> 岐伯對曰 …… 故<sup>로</sup> 春刺散俞<sup>와</sup> 及與 分理<sup>라야</sup> 血出而止<sup>니</sup> 甚者는 傳氣<sup>오</sup> 間者는 環也<sup>라</sup> 夏刺絡俞<sup>라야</sup> 見血而止<sup>니</sup> 盡氣閉環<sup>라면</sup> 痛病必下<sup>라</sup>”하여 春에는 散俞를 刺하고 夏에는 絡俞를 刺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素問·刺瘡』에서 “足太陽之瘡은 令人腰痛頭重<sup>하고</sup> 寒從背起<sup>하며</sup> 先寒後熱<sup>라야</sup> 焇焇喝喝<sup>라니</sup> 熱止汗出<sup>라면</sup> 難已<sup>니</sup> 刺郄中出血<sup>라라</sup>”라고 하여 六經중 足太陽之瘡의 증상에 郄中을 刺하여 出血시켜야 함을 말하였고, “肝瘡者는 令人色蒼蒼然 太息<sup>하며</sup> 其狀若死者<sup>라니</sup> 刺足厥陰<sup>라야</sup> 見血<sup>라라</sup> …… 胃瘡者는 令人且病也<sup>에</sup> 善饑而不能食<sup>하며</sup> 食而肢滿腹大<sup>라니</sup> 刺足陽明太陰橫脈<sup>라야</sup> 出血<sup>라라</sup>”라하여 肝瘡과 胃瘡에 대하여 자혈부위 등의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瘡發身方熱에 刺附主動脈<sup>라야</sup> 開其空<sup>라야</sup> 出其血<sup>라면</sup> 立寒<sup>이라</sup> …… 瘡에 脈滿大急<sup>이거든</sup> 刺背俞<sup>호되</sup> 用中鍼<sup>으로</sup> 傍五腧俞<sup>하고</sup> 各一<sup>하야</sup> 適肥瘦<sup>라야</sup> 出其血也<sup>라</sup> …… 瘡에 脈滿大急<sup>라면</sup> 刺背俞<sup>라며</sup> 用五腧俞<sup>하고</sup> 背俞各一<sup>하야</sup> 適行至於血也<sup>오</sup> …… 諸瘡而脈不見<sup>이거든</sup> 刺十指間出血<sup>이니</sup> 血去必已<sup>라</sup> 先視身之赤如小豆者<sup>라야</sup> 盡取之<sup>하라</sup> 十二瘡者는 其發이 各不同時<sup>니</sup> 察其病形<sup>라야</sup> 以知其何脈之病也<sup>라</sup> 先其發時<sup>라면</sup> 如食頃而刺之<sup>니</sup> 一刺則衰<sup>하고</sup> 二刺則知<sup>하고</sup> 三刺則已<sup>라하니</sup> 不已<sup>어든</sup> 刺舌下兩脈出血<sup>하며</sup> 不已<sup>어든</sup> 刺郄中盛經出血<sup>하며</sup> 又刺項已下俠脊者<sup>라면</sup> 必已<sup>니</sup> 舌下兩脈者는 廉泉也<sup>라</sup>”라하여 학질의 맥증과 자혈부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刺瘡者는 必先問其病之所先發者<sup>라야</sup> 先刺之<sup>니</sup> 先頭痛及重者는 先刺頭上<sup>하고</sup> 及兩額兩眉間<sup>라야</sup> 出血<sup>하며</sup> 先項背痛者는 先刺之<sup>하고</sup> 先腰痛者는 先刺郄中出血<sup>하고</sup> 先手臂痛者는 先刺手少陰陽明十指間<sup>하고</sup> 先足脛疼痛者는 先刺足陽明十指間出血<sup>라라</sup> 風瘡은 瘡發則汗出惡風<sup>라니</sup> 刺三陽經背俞之血者<sup>하고</sup> 筋痠痛甚<sup>라야</sup> 按之不可<sup>를</sup> 名曰附髓病<sup>이니</sup> 以鑱鍼<sup>으로</sup> 鍼絕骨出血<sup>라면</sup> 立已<sup>리라</sup> 身體小痛<sup>이거든</sup>

刺至陰하고 諸陰之井호되 無出血하며 間日一刺하고 瘧不渴하고 間日而作이든 刺足太陽하고 渴而間日作이든 刺足少陽하라 溫瘧에 汗不出이든 爲五十九刺하라”하여 瘧疾에서 먼저 나타나는 症狀의 治療에 있어서 刺血部位를 논했다17).

『素問·刺腰痛篇』에서 “足太陽脈이 令人腰痛하면 引項脊背如重狀하니 刺其郛中太陽正經하야 出血호되 春無見血하라 少陽이 令人腰痛하면 如以鍼으로 刺其皮中循循然하고 不可以俛仰하며 不可以顧. 刺少陽成骨之端하야 出血하라 成骨은 在膝外廉之骨獨起者하니 夏無見血하라 陽明이 令人腰痛하면 不可以顧하니 顧如有見者는 善悲하니 刺陽明於脗前三疔하야 上下和之하야 出血과 秋無見血하라 足少陰이 令人腰痛하면 痛引脊內廉하니 刺少陰於內踝上二疔호되 春無見血하라 出血太多하면 不可復也라 厥陰之脈이 令人腰痛하면 腰中如張弓弩弦하니 刺厥陰之脈호되 在踰踵魚腹之外하니 循之累累然하야 乃刺之하고 其病이 令人善言하니 默然不慧이든 刺之三疔하라”라하여 正經이 일으키는 요통의 증상 및 자법과 자혈부위를 논했으며, “解脈이 令人腰痛하면 痛而引肩하며 目眩眩하며 時遺洩라 刺解脈在膝筋內分間이 郛外廉之橫脈하야 出血하야 血變而止하라 解脈이 令人腰痛하면 如引帶하며 常如折腰狀하며 善恐이든 刺解脈在郛中이니 結絡如黍米하야 刺之하면 血射以黑하리니 見赤血而已하라 …… 衡絡之脈이 令人腰痛하면 不可以俛仰하고 仰則恐하니 得之舉重傷腰하야 衡絡이 絶하야 惡血이 歸之라 刺之在郛陽筋之間과 上郛數寸이니 衡居爲二疔出血하라 會陰之脈이 令人腰痛하면 痛上漯漯然汗出하니 汗乾令人欲飲하고 飲已欲走하니 刺直陽之脈上三疔니 在躄上郛下五寸橫居하니 視其盛者하야 出血하라”라고 하여 奇經, 支脈 및 絡脈이 일으키는 요통의 증상 및 자법과 자혈부위를 논하였고, “腰痛에 俠脊而痛至頭하야 几几然하며 目眩眩하며 欲僵仆이든 刺足太陽郛中하야 出血하라 腰痛에 上寒이든 刺足太陽陽明하고 上熱이든 刺足厥陰하고 不可以俛仰이든 刺足少陽하고 中熱而喘이든 刺足少陰호되 刺郛中出血하라”라하여 腰痛의 경중에 따른 刺血部位와 治法을 제시하였다18).

『素問·調經論』에서 “帝曰 善타 志有餘不足은 奈何오

岐伯曰 志有餘 則腹脹飧泄하고 不足則厥이라 血氣未并하면 五臟이 安定하니 骨節有動이니이다 帝曰 補瀉는 奈何오 岐伯曰 志有餘則瀉然筋血者이요 不足 則補其復溜니이다”라하여 ‘然筋血者’라는 刺血部位를 제시하고 있다.

『素問·繆刺論』에서는 “帝曰 願聞繆刺奈何와 取之何如하노라 岐伯曰 邪客於足少陰之絡하면 令人卒心痛하며 暴脹하야 胸脇이 肢滿하니 無積者는 刺然骨之前하야 出血하면 如食頃而已라 …… 人有所墮墜하야 惡血留內하면 腹中滿脹하야 不得前後하니 先飲利藥이니 此는 上傷厥陰之脈하고 下傷少陰之絡이라 刺足內踝之下 然骨之前의 血脈하야 出血하며 刺足跗上動脈이니 不已이든 刺三毛上하되 各一疔하야 見血하며 立이라 …… 噎中이 腫하야 不能內唾하며 時不能出唾者는 刺然骨之前하야 出血立이라 …… 齒齲는 刺手陽明하야 不已이든 刺其脈入齒中하면 立已하고 邪客於五臟之間하면 其病也 脈引而痛하야 時來時止이든 視其病하야 繆刺之於手足爪甲上이니 視其脈하야 出其血하되 間日一刺하고 一刺不已이든 五刺하면 已하고 …… 繆傳引上齒하면 齒唇이 寒痛하니 視其手背脈血者하야 去之라”라고 하여 邪氣가 三陰三陽 등의 絡에 침입하여 머물렀을 때의 繆刺하는 刺血部位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내용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에서는 相關血位에 刺血하는 것이 대다수이며 瘀血이 있는 絡脈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이는 相關血位에 瘀血이 있는 絡脈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素問』의 내용에서는 本文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瘀血 絡脈이나 病變部位에 刺血한다는 내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 6. 注意事項 및 刺血後 反應

『素問·血氣形志篇』에서는 “刺陽明엔 出血氣하고 刺太陽엔 出血惡氣하고 刺少陽엔 出氣惡血하고 刺太陰엔 出氣惡血하고 刺少陰엔 出氣惡血하고 刺厥陰엔 出血惡氣也라”19)라하여 六經의 氣血의 多少에 따른 刺血原則提示하면서 刺血하지 말아야 할 경우에 대하여 논했다.

『素問·刺瘡篇』에서 “身體小痛이든 刺至陰하고 諸陰

17) 王琦, 李炳文, 邱德文, 王慶其, 彭榮琛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1983. p. 179.

18) 王琦, 李炳文, 邱德文, 王慶其, 彭榮琛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1983. pp. 197-198.

19) 王琦, 李炳文, 邱德文, 王慶其, 彭榮琛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1983. p. 130.

之井<sup>호</sup> 無出血<sup>라</sup>며”<sup>20)</sup>라하여 刺瘡하는데에서의 注意事項(無出血)을 제시했다.

『素問·刺腰痛篇』에서는 “足太陽脈이 令人腰痛<sup>라</sup>면 引項脊背如重狀<sup>라</sup>니 刺其郛中太陽正經<sup>라</sup>야 出血<sup>호</sup>되 春無見血<sup>라</sup>라 少陽이 令人腰痛<sup>라</sup>면 如以鍼<sup>호</sup>로 刺其皮中循循然<sup>호</sup>고 不可以俛仰<sup>라</sup>며 不可以顧<sup>호</sup> 刺少陽成骨之端<sup>라</sup>야 出血<sup>라</sup>라 成骨은 在膝外廉之骨獨起者<sup>라</sup>니 夏無見血<sup>라</sup>라 陽明이 令人腰痛<sup>라</sup>면 不可以顧<sup>라</sup>니 顧如有見者는 善悲<sup>라</sup>니 刺陽明於筋前三疔<sup>라</sup>야 上下和<sup>호</sup>야 出血<sup>호</sup> 秋無見血<sup>라</sup>라 足少陰이 令人腰痛<sup>라</sup>면 痛引脊內廉<sup>라</sup>니 刺少陰於內踝上二疔<sup>호</sup>되 春無見血<sup>라</sup>라 出血太多<sup>라</sup>면 不可復也<sup>라</sup> 厥陰之脈이 令人腰痛<sup>라</sup>면 腰中如張弓弩弦<sup>라</sup>니 刺厥陰之脈<sup>호</sup>되 在臑踵魚腹之外<sup>라</sup>니 循之累累然<sup>라</sup>야 乃刺<sup>호</sup>고 其病이 令人善言<sup>라</sup>나니 默然不慧<sup>호</sup>는 刺之三疔<sup>라</sup>야”하여 正經이 일으키는 腰痛의 症狀 및 刺法을 論함에 있어서 季節別 禁忌와 出血多少에 따른 注意事項을 제시하였다.

『素問·刺禁論』에서는 “刺附上 中大脈<sup>라</sup>야 血出不止<sup>라</sup>면 死<sup>호</sup>고 刺面中溜脈<sup>라</sup>면 不幸爲盲<sup>호</sup>이오 刺頭中腦戶<sup>라</sup>면 入腦立死<sup>호</sup>고 刺舌下 中脈太過<sup>라</sup>야 血出不止<sup>라</sup>면 爲瘡<sup>호</sup>이오 刺足下布絡中脈<sup>라</sup>야 血不出<sup>라</sup>면 爲腫<sup>호</sup>이오 刺郛中大脈<sup>라</sup>면 令人仆 脫色<sup>호</sup>이오 刺氣街中脈<sup>라</sup>야 血不出<sup>라</sup>면 爲腫鼠僕<sup>호</sup>이오 刺脊間中髓<sup>라</sup>면 爲偃<sup>호</sup> 刺乳上<sup>라</sup>야 中乳房<sup>라</sup>면 爲腫根蝕<sup>호</sup>이오 刺缺盆中 內陷<sup>라</sup>면 氣泄<sup>호</sup>야 令人喘欬逆<sup>호</sup>고 刺手魚腹 內陷<sup>라</sup>면 爲腫<sup>호</sup>이라 無刺大醉<sup>호</sup>니 令人氣亂<sup>호</sup>이오 無刺大怒<sup>호</sup>니 令人氣逆<sup>호</sup>이라 無刺大勞人<sup>호</sup>며 無刺新飽人<sup>호</sup>며 無刺大饑人<sup>호</sup>며 無刺大渴人<sup>호</sup>며 無刺大驚人<sup>호</sup>이라 刺陰股中大脈<sup>라</sup>야 血出不止<sup>라</sup>면 死<sup>호</sup>고 刺客主人 內陷中脈<sup>라</sup>야 爲內漏<sup>호</sup>라 爲龔<sup>호</sup>이오 刺膝髓出液<sup>라</sup>면 爲跛<sup>호</sup> 刺臂太陰脈<sup>라</sup>야 出血<sup>호</sup>면 多立死<sup>호</sup>고 刺足少陰脈<sup>라</sup>야 重虛出血<sup>호</sup>면 爲舌難以言<sup>호</sup>”라하여 禁刺의 諸證 및 禁刺의 部位와 誤刺後 發生되는 各種의 不良한 結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素問·調經論』에서는 “帝曰 補瀉는 奈何<sup>호</sup> 岐伯曰 神有餘則瀉其小絡之血<sup>라</sup>야 出血<sup>호</sup>고 勿之深斥<sup>호</sup>이니 無中其大經<sup>호</sup>야 神氣乃平<sup>호</sup>고 神不足者는 視其虛絡<sup>호</sup>야 按而致之<sup>호</sup>며 刺而利之<sup>호</sup>되 無出其血<sup>호</sup>며 無泄其氣<sup>호</sup>고 以通其經<sup>호</sup>야 神氣乃平<sup>호</sup>하니이다 …… 帝曰 善<sup>호</sup>타 血有餘不足은 奈何<sup>호</sup> 岐伯曰 血有餘則怒<sup>호</sup>고 不足則恐<sup>호</sup>니 血氣未并<sup>호</sup>야

五臟이 安定<sup>호</sup>나 孫絡水溢<sup>호</sup>면 則經有留血<sup>호</sup>이니이다 帝曰 補瀉는 奈何<sup>호</sup> 岐伯曰 血有餘則瀉其盛經<sup>호</sup>야 出其血<sup>호</sup>고 不足則視其虛經<sup>호</sup>야 內鍼其脈中<sup>호</sup>야 久留而視<sup>호</sup>니 脈大疾<sup>호</sup>이든 出其鍼<sup>호</sup>야 無令血泄<sup>호</sup>이니이다 帝曰 刺留血은 奈何<sup>호</sup> 岐伯曰 視其血絡<sup>호</sup>야 刺出其血<sup>호</sup>고 無令惡血<sup>호</sup>로 得入於經<sup>호</sup>야 以成其疾<sup>호</sup>이니이다”라하여 神과 血有餘不足時의 注意事項을 논했다.

『素問·刺禁論』에는 “刺附上中大脈 血出不止死 刺面中溜脈 不幸爲盲 …… 刺舌下中脈太過 血出不止爲瘡 刺足下布絡中脈 血不出爲腫 刺郛中大脈 令人仆脫色 刺氣街中脈, 血不出爲腫 鼠僕”, “刺陰股中大脈 血出不止死”, “刺臂太陰脈, 出血多立死”라고記載되어 있는 바<sup>21)</sup>, 이는 針刺瀉血할 때 大動脈이나 大靜脈은 피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出血不止함을 說明한 것이다. 또한, 意外의 結果가 發生할 수도 있는데 中小血管을 刺했을 때, 血液이 外瀉內溢하여 血腫이 되거나 面部穴位를 刺하여 出血시킬 때는 마땅히 出血量과 瀉血部位에 注意해야 하는데, 眼部出血이 過多하면 失明에 이르며, 舌下失血이 過多하면 失音에 이르는 等等이다.

『素問·血氣形志篇』에서는 六經氣血의 多少에 따른 注意事項, 『素問·刺瘡篇』에서는 症狀에 따른 注意事項, 『素問·刺腰痛篇』에서는 季節別 禁忌와 出血多少에 따른 注意事項, 『素問·調經論』에서는 神과 血有餘不足時의 注意事項을 논하는 등 『素問』의 여러 篇에 걸쳐서 刺血時 注意事項을 세밀히 논했는 바, 刺血後 反應 및 注意事項은 오늘날까지 臨床上 여전히 意義를 갖는다 하겠다<sup>22)</sup>.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 V. 결 론

이상과 같이 『素問』에 제시된 刺血療法에 대하여 그 목적과 의의, 刺血原則, 主治病症, 刺血方法(刺血道具와 深淺, 時間, 出血多少標準 등), 刺血部位, 注

20) 王琦, 李炳文, 邱德文, 王慶其, 彭榮琛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1983. p. 179.

21) 王琦, 李炳文, 邱德文, 王慶其, 彭榮琛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1983. p. 238.

22) 趙慧玲, 張印生, 關紅雨, 李 珮, 彭慧敏, 安 靜, 汪天娟. 『內經』刺絡瀉血法探析. 中國民間療法 2009.11. 제17권 제117]. p. 4.

意事項 및 刺血後 反應 등에 대하여 原文을 分析·考察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內經』의 刺血은 內科病을 主로 治療하며 더불어 五官, 外科 등 病證을 治療한다.
2. 處方은 辨證하여 循經取穴을 爲主로 하고 局部와 對症取穴을 結合한다.
3. 刺血部位는 비록 靜脈과 血絡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血脈의 瘀滯가 있어야 한다.
4. 瀉血道具는 砭石, 鑱鍼, 鈹針, 鋒針 등이 있고, 瀉血量의 多少는 病證에 따라 다르다. 아울러 注意事項과 刺血後 反應도 提示하였다.
5. 刺血療法은 主로 經脈을 疏通시켜 氣血을 調和롭게 하여, 陰陽을 調整함으로써 扶正祛邪를 통해 疾病을 治療하는데에 目的이 있다.

刺血療法은 『內經』 이전에도 文字記載가 있었지만, 비교적 完備된 論述은 『內經』에서 시작되었다. 이후에도 刺血療法에 대한 記錄이 많은 醫書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刺血療法에 대한 文獻研究가 필요하다.

## 參考文獻

<도서>

1. 王琦, 李炳文, 邱德文, 王慶其, 彭榮琛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1983. p. 28, 122, 130, 142, 159, 172, 179, 220, 238, 243, 247, 255, pp. 80~81, 111~112, 197~198, 273~274, 282~284.
2.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2. 개정판 4쇄. 여강출판사. 2001. p. 493, 517, 509, 529.

<논문>

1. 金軍. 刺血療法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博士

學位論文. 2007. p. 1.

2. 王 銳. 『內經』刺血療法探析. 山東中醫學院學報 제20권 제5기. 1996. p. 308.
3. 趙慧玲, 張印生, 關紅雨, 李 玥, 彭慧敏, 安 靜, 汪天娟. 『內經』刺絡瀉血法探析. 中國民間療法 2009.11. 제17권 제11기. p. 3, 4.

부록. 표1, 표2, 표3, 표4.

기준	원칙	내용	비고
사람과 病에 따른 치법	必先度其形之肥瘦 …… 必先去其血脈	孫絡病者는 治其孫絡血 上實下虛어든 切而從之하야 索其結絡脈하야 刺 出其血	三部九候論
六經 氣血의 多少	凡治病 必先去其血	刺陽明엔 出血氣, 刺太陽엔 出血惡氣, 刺厥陰엔 出血惡氣	血氣形志篇
眞氣와 邪氣의 離 合	補瀉	此攻邪也하야 疾出以去盛血	離合眞邪論
瘧疾	皆取之	在孫絡盛堅而血者	瘧論
頸癰	同病異治	夫癰氣之息者는 宜以鍼開除去之하고 夫氣盛血聚 者는 宜石而瀉之	病能論
人體의 表裏內外 가 相應	內解瀉於中者 十脈	孫絡之脈別經者에 其血이 盛而當瀉者	氣穴論
神·(氣)·血·(形)·志 의 虛實證	補瀉	神有餘則瀉其小絡之血하야 出血…… 神不足者는 視其虛絡하야 按而致之하며 刺而利之호되 無出 其血 血有餘則瀉其盛經하야 出其血하고 不足則視其虛 經하야 內鍼其脈中하야 久留而視니 脈大疾이어 든 出其鍼하야 無令血泄 志有餘則瀉然筋血者이요 不足則補其復溜	調經論
繆刺之數	盡取之	因視其皮部에 有血絡者	繆刺論

표 1. 刺血原則

구분	瘀血 絡脈	病變 部位	相關 穴位	篇
診要			春刺散俞 及與分理 血出而止, 夏刺絡俞 見血而止	經終論
足太陽之瘧			刺郄中出血	刺瘧
肝瘧者			刺足厥陰 見血	
胃瘧者			刺足陽明太陰橫脈 出血	
瘧發身方熱			刺附上動脈 開其空 出其血	
瘧脈滿大急			刺背俞 …… 出其血也	
諸瘧而脈不見			刺十指間出血	
十二瘧者			不已 刺舌下兩脈出血 不已 刺郄中盛經 出血	
先頭痛及重者		先刺頭上 及兩額兩眉間 出血		
先腰脊痛者			先刺郄中出血	
先手臂痛者		先刺手少陰陽明十指間		
先足脛痠痛者		先刺足陽明十指間出血		
風瘧 瘧發則汗出惡風			刺三陽經背俞之血者	
筋痠痛甚 按之不可			鍼絕骨出血	
足太陽脈令人腰痛			刺其郄中太陽正經 出血	刺腰痛篇
少陽令人腰痛			刺少陽成骨之端 出血	
陽明令人腰痛			刺陽明於筋前三疔 …… 出血	
足少陰令人腰痛			刺少陰於內踝上二疔	
厥陰之脈令人腰痛			刺厥陰之脈 在臑踵魚腹之外 循之累累然 乃刺之	
解脈令人腰痛	刺解脈在膝筋肉分間 郄外廉之橫脈 出血			
			刺解脈在郄中 結絡如黍米 刺之	
衡絡之脈令人腰痛			刺之在郄陽筋之間 上郄數寸 衡居爲二疔 出血	
會陰之脈令人腰痛			刺直陽之脈上三疔 在臑上郄下五寸橫居 視其盛者 出血	
腰痛 俠脊而痛至頭 几几然 目眈眈 欲僵仆			刺足太陽郄中 出血	
腰痛 …… 中熱而喘			刺足少陰 刺郄中出血	

志有餘			瀉然筋血者	調經論
邪客於足少陰之絡			刺然骨之前 出血	繆刺論
上傷厥陰之脈 下傷少陰之絡			刺足內踝之下 然骨之前 血脈 出血 刺足 附上動脈 不已 刺三毛上 各一痛 見血 立已	
噎中腫 不能 內唾 時不能 出唾者			刺然骨之前 出血立已	
邪客於五臟之間			視其病 繆刺之於手足爪甲上 視其脈 出 其血 間日一刺 一刺不已 五刺 已	
繆傳引上齒			視其手背脈血者 去之	
孫絡病者	治其孫絡血, 索其結 絡脈, 刺出其血			三部九 候論篇
肝病者			取其經厥陰與少陽 …… 取血者	臟氣法 時論
心病者			取其經 少陰太陽 舌下血者 其變病 刺郄 中血者	
脾病者			取其經 太陰陽明少陰血者	
肺病者			取其經太陰 足太陽之外 厥陰內血者	
腎病者			取其經 少陰太陽血者	
肺熱病者			刺手太陰陽明 出血如大豆 立已	刺熱篇
瘡之且發也 陰陽之且移也	在孫絡盛堅而血者 皆取之			瘡論篇
有病頸癰者		夫癰氣之息者 宜以鍼開除去 之 夫氣盛血聚 者 宜石而瀉之		病能論 篇
治腐腫者		刺腐上 視癰小 大 深淺刺 刺 大者 多血		長刺節 論篇
神有餘	瀉其小絡之血 出血			調經論 篇
刺留血	視其血絡 刺出其血			
有痛而經不病 者 繆刺之	因視其皮部 有血絡 者 盡取之 此繆刺之 數也			繆刺論 篇

表 2. 刺血部位

구분	臟腑病症	經絡病症	神志病症	篇
肝病者	兩脇下痛引少腹		令人善怒, 善恐 如人將 捕之	臟氣 法時 論
		虛則目眩暈無所見, 耳無所聞, 氣逆則頭痛, 耳聾不聰 頰腫		

心病者	胸中痛 脇肢滿 脇下痛 膺背肩甲間痛			
	脇下與腰 相引而痛	兩臂內痛, 虛則胸腹大		
脾病者	身重善 飢肉痿 足不收行 善噤, 虛則腹滿腸鳴 飧泄食不化	脚下痛		
肺病者	喘欬逆氣 肩背痛 汗出, 虛則少氣 不能報息	尻陰股膝 髀膕胫足 皆痛, 耳聾 喑乾		
腎病者	喘欬身重 寢汗出憎風 虛則胸中痛 大腹小腹痛	腹大脛腫	清厥意不樂	
肺熱病者	先漸然 厥起毫毛 惡風寒 舌上黃 身熱 熱爭則喘欬 痛走胸膺背 不得大息 頭痛不堪 汗出而寒		刺熱篇	
足太陽之瘧		令人腰痛頭重 寒從背起 先寒後熱 焯焯暍暍然	刺瘧	
肝瘧者	令人色蒼蒼然 太息			
胃瘧者	善饑而不能食 食而肢滿腹大			
足太陽脈 令人腰痛		引項脊背如重狀	刺腰痛篇	
少陽 令人腰痛		如以鍼 刺其皮中循循然 不可以俛仰 不可以顧		
陽明 令人腰痛		不可以顧		顧如有見者 善悲
足少陰 令人腰痛		痛引脊內廉		
厥陰之脈 令人腰痛		腰中如張弓弩弦		其病 令人善言 默然不慧
解脈 令人腰痛		痛而引肩 目眈眈然 時遺洩		
		如引帶 常如折腰狀		善恐
衡絡之脈 令人腰痛		不可以俛仰 仰則恐仆		
會陰之脈 令人腰痛		痛上漯漯然汗出 汗乾令人欲飲 飲已欲走		
邪客於足少陰之絡		令人卒心痛 暴脹 胸脇 肢滿	繆刺論	
上傷厥陰之脈 下傷少陰之絡		人有所墮墜 惡血留內 腹中滿脹 不得前後		
不能內唾 時不能出唾者		噎中 腫(足少陰腎經)		
邪客於五臟之間		其病也 脈引而痛 時來時止(五臟之絡脈)		

繆傳引上齒	齒唇 寒痛		
-------	-------	--	--

丑 3. 主治病症

구분	내용	篇名
注意事項	刺少陽 出氣惡血, 刺太陰 出氣惡血, 刺少陰 出氣惡血	血氣形志篇
	身體小痛 刺至陰 諸陰之井 無出血	刺瘧篇
	足太陽脈 令人腰痛 …… 出血 春無見血 少陽 令人腰痛 …… 夏無見血 陽明 令人腰痛 …… 秋無見血	刺腰痛篇
	足少陰 令人腰痛 …… 春無見血 出血太多 不可復也 神有餘則瀉其小絡之血 出血 勿之深斥 無中其大經 …… 神不足者 視其虛絡 按而致之 刺而利之 無出其血, 血有餘則瀉其盛經 出其血 不足則視其虛經 內鍼其脈中 久留而視 脈大疾 出 其鍼 無令血泄	調經論
刺血後 反應	刺跗上 中大脈 血出不止 死 刺面中溜脈 不幸爲盲 刺舌下 中脈大過 血出不止 爲瘡 刺足下布絡中脈 血不出 爲腫 刺郄中大脈 令人仆 脫色 刺氣街中脈 血不出 爲腫鼠僕 刺陰股中大脈 血出不止 死 刺臂太陰脈 出血 多立死 刺足少陰脈 重虛出血 爲舌難以言	刺禁論

丑 4. 刺血의 注意事項 및 刺血後反應

